연암집 읽기 제6강 강의안

제6강 :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1. 연꽃 바람, 댓잎 이슬(하풍죽로당기荷風竹露堂記)

- 쓰레기장이 향기로운 정원으로...
- 引曲渠 穿翠屛(굽은 도랑을 끌어다 푸른 울타리를 뚫고 지나게 함): 酒池肉林과 曲水流觴
- 與梅同癯: 매화를 구선(癯仙)이라 하는데 청빈한 선비처럼 몸이 여위었다는 뜻에서이다. - 매화치(梅花癡) 李滉의 유언: 매화에 물주라. 매화시 110수, 如鍼箚身 如呼寐者.

荷風竹露堂記

正堂西廂은 廢庫荒頓하야 廐湢(구벽:마구간 목욕간)相連하고 數步之外엔 委溷棄灰하야 朽壤堆阜하야 積高出簷하니 葢一衙之奧區요 而衆穢之所歸也라 方春雪消風薰하니 尤所不堪이라

정당의 서쪽 곁채는 버려진 창고로 황폐하고 무너져 가는데 마구간과 목욕간이 이어져 있고, 몇 걸음 밖에는 쓰레기와 재를 버려 썩은 흙더미가 언덕을 이루어 쌓인 높이가 처마를 넘게 되었으니 관아에서 가장 구석진 곳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인 곳이다. 바야흐로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바람이 따뜻해지자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遂乃日課僮隷하야 畚擔刮剔하야 匝旬而成曠墟하니 橫延二十五丈이요 廣袤十之三焉이라 刪灌薙茀하고 夷凸塡坎하며 槽櫪旣徙하니 地益爽塏요 嘉木整列하니 蟲鼠遠藏이라 於是中分其地하야 南爲南池하고 因廢庫之材하야 北爲北堂하

다

마침내 어린 종들에게 일과를 주어서 긁어 낸 것들을 삼태기로 져 날라서 열흘이 지난 뒤에 빈 터가 생겼으니 가로는 25장이 되고 너비는 10분의 3이 되었다. 도랑을 치우고 우거진 풀을 깎아 버리고 튀어나온 곳을 평평하게 다지고 구덩이를 메우고 말구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니 터가 한결 시원해졌다. 좋은 나무들을 가지런히 심어두니 벌레와 쥐가 멀리 숨어 버렸다. 이에 그 터를 절반으로 나누어 남쪽에는 남지를 만들고 버려진 창고의 재목을 써서 북쪽에 북당(北堂)을 지었다.

堂東面橫四楹縱三楹이요 會檏如髻하고 冐以胡盧하며 中爲燕室하고 連爲洞房하다 前左挾右에 虛爲敞軒이요 高爲層樓이요 繚爲步欄이요 疎爲明牕(窓)이요 圓爲風戶라

당은 동향으로 가로로는 기둥이 넷이고, 세로로는 기둥이 셋이다. 서까래 머리를 모아 상투같이 꾸미고 지붕에는 호로를 씌우고 가운데는 쉬는 곳을 만들고 이어서 침실을 만들었다. 앞쪽의 왼편과 옆쪽의 오른편에 빈 곳은 트인 마루이고 높은 곳은 층루며, 둘러싼 것은 복도이고 성글게 만든 것은 밝은 창이고 둥근 것은 통풍구다.

引曲渠 穿翠屏하고 畫苔庭하야 鋪白石하니 被流暎帶 鳴爲幽磵하고 激爲噴瀑하야 入于南池라 架甎爲欄하야 以護池塢하고 前爲脩墻以限外庭하고 中爲角門以通正堂하며 益南以折하야 屬之塘隈하고 中爲虹空하야 以通烟湘小閣이라

굽은 도랑을 끌어다 푸른 울타리를 뚫고 지나게 하고, 이끼 낀 뜰을 나누어 흰 돌을 깔아두니 그 위로 흐르는 물이 어리비치고, 졸졸 소리가 날 때는 그윽한 시내가 되고 급히 흐를 때는 솟구치는 폭포가 되어 남지로 들어간다. 벽돌을 쌓아 난간을 만들어 못 둑을 호위하고 앞쪽에는 긴 담장을 만들어 바깥뜰과 구분하고, 가운데는 일각문을 만들어 정당과 통하게 하고, 더 남쪽으로 나가 방향을 꺾어서 못의 모퉁이에 붙여서 가운데에 홍예교(虹蜺橋)를 만들어 연상소각과 통하게 하였다.

大抵堂之勝在墻하니 及肩以上은 則更合兩瓦하야 竪倒偃側하야 六出爲菱하고 雙環爲瑣하고 綻爲魯錢하며 聯爲薛牋하니 嵌空玲瓏하고 窈窕邃夐이라 墻下一樹紅桃이요 池上二樹古杏이요 樓前一樹梨花요 堂後萬竿綠竹이요 池中千柄芙蓉이요 中庭芭蕉十有一本이요 圃中人蔘九本이요 盆中一樹寒梅하니 不出斯堂이요 而四時之賞備矣라

대체로 이 당의 구경거리는 담장에 있다. 어깨 이상은 기와 두 개를 다시 모아서 거꾸로 세우거나 옆으로 누여서 여섯 개의 모를 내고 쌍으로 고리를 만들어 사슬을 만들었는데 터진 곳은 노전 같이 되고 이은 곳은 설도전 모양이 되니 구멍이 파인 곳은 영롱하고 깊은 곳은 아득하다. 담장 아래는 붉은 복숭아나무 한 그루, 못가에는 늙은 살구나무 두 그루를 심고, 누대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 당 뒤에는 만 간의 푸른 대나무를 심었으며, 못 한가운데는 수천 그루의 부용, 뜰 한가운데는 파초 열한 뿌리를 심고, 밭에는 인삼 아홉 뿌리를 심고, 화분에는 매화 한 그루를 심어두니 이 당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사계절을 감상할거리가 모두 갖추어졌다.

若夫涉園而萬竹綴珠者는 淸露之晨也요 凭欄而千荷送香者는 光風之朝也요 襟煩鬱而慮亂하고 巾嚲墊而睫重이라가 聽于芭蕉而神思頓淸者는 快雨之晝也요 嘉客登樓하야 玉樹爭潔者는 霽月之夕也요 主人下帷하야 與梅同癯者는 淺雪之宵也니 此又隨時寓物하야 各擅其勝於一日之中이나 而彼百姓者無與焉이면 則是豈太守作堂之意也哉

아

이를테면 동산을 지나면 만 개의 대나무에 구슬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은 맑은 이슬 내린 새벽이고, 난간에 기대면 수천 그루의 연꽃이 향기를 보내오는 것은 맑은 바람이 부는 아침이고, 가슴이 답답하며 생각이 어지럽고 탕건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다가 후두둑하는 파초 소리를 듣고 정신과 생각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은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는 한낮이고, 아름다운 손님과 함께 누대에 오르면 옥 같은 나무들이 깨끗함을 다투는 것은 비개인 뒤 밝은 달이 떠오른 날 저녁이고, 주인이 휘장을 드리우고 매화와 함께 야위어 가는 것은 눈이 살짝 내린 한밤중이다. 이것은 또 때에 따라 사물에 붙여서 각기 하루 동안의 구경거리를 드러내게 한 것이지만 저 백성들과 함께함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태수가 이 당을 지은 본뜻이겠는가.

噫라 後之居斯堂者 觀乎荷之朝敷而所被者遠커든 則如風之惠焉하고 觀乎竹之曉潤而所沾者勻커든 則如露之溥焉하리니 此吾所以名其堂하야 而以待夫後來者니라

아! 훗날 이 당에 머무는 이가 연꽃이 아침에 피어 향기가 멀리 퍼지는 것을 보거든 마치 바람처럼 따사로운 은혜를 베풀고, 대나무가 새벽에 이슬에 무젖어 골고루 적셔진 것을 보거든 새벽이슬처럼 백성들을 널리 사랑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가 이 당의 이름을 하풍죽로당이라 하여 훗날 올 사람을 기다리는 까닭이다.

2. 눈 속에서 잣나무를 찾다(불이당기不移堂記)

- 貧賤不能移(<孟子 滕文公下>),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論語 子罕>)
- 子虛, 烏有先生, 亡是公(司馬相如의 <子虛賦>)
- 名者 實之賓 吾將爲賓乎(<莊子 逍遙遊>)
- 1752년, 16세 때 이보천의 딸과 혼인. 장인 이보천에게 《맹자》를 배움. 처숙 홍문관 교리 이양천에게 문장 짓는 법을 배움. 연암이 '항우본기'를 모방하여 '이충무전'을 지었는데, 반고와 사마천과 같은 글 솜씨가 있다고 크게 칭찬받음.
- 1755년, 19세 때 영목당 이양천(李亮天: 1716-1755)이 40세의 나이로 별세. 자 功甫. 연암은 <제영목당이공문(祭榮木堂李公文)>을 지었다.
- 1794년, 58세 때 : 장남 종의(宗儀)가 성균시(成均試)에 응시하려 하자, 이서구가 성균관장으로 있다고 편지를 보내 응시하지 않게 함. 자신의 구명운동을 거절한 이양천의 처세와 닮은 꼴.

- 추사의 세한도도 불이도(不移圖)라 할 만함.
- 심동현(沈董玄): 화가 심사정(沈師正: 1707-1769).
- 이원령(李元靈): 화가 이인상(李麟祥: 1710-1760).
- 공명의 사당: 丞相祠堂何處尋 錦官城外柏森森
- 설부(雪賦): 진(晉) 사혜련(謝惠連: 397-433)이 지은 부(賦). 한 무제때 양효왕(梁孝王)이 사마상여(司馬相如) 등과 함께 눈 오는 정원에서 주연을 베풀며 노닐던 이야기.

不移堂記

士涵自號竹園翁하더니 而扁其所居之堂曰 不移라하고 請余序之한대 余嘗登其軒而涉其園하니 則不見一挺之竹일새 余顧而笑曰 是所謂無何鄉 烏有先生之家耶아 名者는 實之賓이어니 吾將爲賓乎아 士涵이 憮然爲間曰 聊自寓意耳라

사함이 스스로 죽원옹이라 호를 짓고, 자신이 살고 있는 당에 '불이(不移)'라는 편액을 내걸고 나에게 서문을 지어 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내가 그 집 난간에 오르고 정원을 돌아다녀 보아도 한 그루의 대나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이른바 무하유지향 오유선생의 집인가? 이름이란 실질(實質)의 손님인데 나더러 손님이 되란 말인가?"
그랬더니 사함이 쑥스러워하며 잠깐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냥 재미삼아 그런 뜻을 한번 붙여 봤을 뿐이네."

余笑曰 無傷也하라 吾將爲子實之也하리라 曩에 李學士功甫閒居에 爲梅花詩하고 得沈董玄墨梅以弁軸이러니 因笑謂余曰 甚矣라 沈之爲畫也여 能肖物而已矣로다 余惑之

曰 爲畵而肖면 良工也어늘 學士何笑爲니잇고 曰有之矣라

내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상심하지 마시게. 내가 그대를 위해 실질을 채워 주겠네.”

이전에 이학사 공보께서 한가히 머무실 적에 매화시를 짓고는 심동현의 묵매도를 얻어 시축의 맨 앞에 붙였어. 이어서 웃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심하구나, 심씨가 그림을 그리는 게. 그저 사물과 꼭 닮을 뿐이로다.”

내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여쭈었어.

“그림을 그렸는데 사물과 꼭 닮았다면 뛰어난 화공일 텐데 학사께서는 어찌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학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까닭이 있지.”

吾初與李元靈遊할새 嘗遺綃一本하야 請畵孔明廟柏이러니 元靈良久에 以古篆書雪賦以還할새 吾得篆且喜하고 益促其畵한대 元靈笑曰 子未喩耶아 昔已往矣라 余驚曰 昔者來는 乃篆書雪賦耳어늘 子豈忘之耶아 元靈笑曰 柏在其中矣라 夫風霜刻厲에 而其有能不變者耶아 子欲見柏인댄 則求之於雪矣하라 余乃笑應曰 求畵而爲篆하고 見雪而思不變하니 則於柏遠矣로다 子之爲道也 不已離乎아

내가 처음에 이원령과 노닐 적에 비단 한 벌을 보내 제갈공명 사당의 잣나무를 그려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다. 원령이 한참이 지나서 옛 전서체로 설부를 써서 돌려주더군. 나는 전서를 얻어서 기뻐하면서 그림을 더욱 재촉했더니 원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대는 아직 깨닫지 못했는가? 지난번에 이미 보냈잖아?” 내가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 “지난번에 온 것은 전서로 쓴 설부일 뿐인데 그대가 어찌 잊어버렸단 말인가?” 원령이 웃으면서 말했어. “잣나무는 그 안에 있다네. 바람과 서리가 매섭게 몰아치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겠는가? 그대가 잣나무를 보고 싶다면 눈 속에서 찾아보시게.” 나도 웃으면서 대꾸했지. “그림을 바랬는데 전서를 써서 주고 눈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라 하니 잣나무와는 너무 멀지 않은가? 그대가 도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既而余言事得罪하야 圍籬黑山島中할새 嘗一日一夜疾馳七百里하되 道路傳言金吾郎且至하면 有後命이라하니 僮僕驚怖啼泣이러라 時天寒雨雪하고 其落木崩崖 嵯砑虧蔽하며 一望無垠이어늘 而岩前老樹 倒垂枝若枯竹이러라 余方立馬하고 披簑遙指하며 稱奇曰 此豈元靈古篆樹耶아

얼마 뒤 내가 언사로 죄를 얻어 흑산도에 위리안치될 때 하루 밤낮 700리를 내리 말달려 간 적이 있었지. 도중에 전해지는 말이 금부도사가 곧 당도하면 후명(後命)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종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울부짖고 눈물을 흘렸어. 그 때 날씨는 차고 눈이 내리고 낙엽진 나무와 무너진 벼랑이 들쭉날쭉 앞을 가리고 한 번 바다를 바라보면 아득히 끝이 없는데 바위 앞에 바위 앞에 늙은 나무가 가지를 거꾸로 드리워 마치 말라버린 대나무 같았어. 내가 비로소 말을 세우고 도롱이를 헤치고 멀리 가리키면서 기이함을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것이 어찌 원령의 전서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겠는가!”

既在籬中하니 瘴霧昏昏하고 蝮蛇蜈蚣이 糾結枕茵하야 爲害不測이라 一夜大風振海하야 如作霹靂하니 從人皆奪魄嘔眩이어늘 余作歌曰 南海珊瑚折奈何오 秪恐今宵玉樓寒이라하다

이윽고 섬에 위리안치되고 나니 독기서린 안개가 어두침침하고 독사와 지네들이 베갯자리에 얽혀서 언제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었어. 어느 날 밤에는 큰 바람이 바다를 흔들어 마치 벼락이 치는 것 같았는데 따라 왔던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토하고 어지러워했어. 내가 그 때 이런 노래를 지었어.

“남쪽 바다의 산호야 꺾인들 어쩌겠는가마는 단지 오늘 밤 옥루가 추울까 걱정이라오.”

元靈書報호되 近得珊瑚曲이러니 婉而不傷하야 無怨悔之意하니 庶幾其能處患也로다 曩時足下嘗求畵柏이러니 而足下亦可謂善爲畫耳라 足下去後에 柏數十本이 留在京師하니 皆曹吏輩禿筆傳寫라 然其勁榦直氣 凜然不可犯하고 而枝葉扶疎 何其盛也오 余不覺失笑曰 元靈可謂沒骨圖로다 由是觀之컨대 善畫不在肖其物而已라하신대 余亦笑러라

원령이 편지로 이렇게 답했어. “근래에 산호곡을 얻어 보았더니 완곡하여 상심하지 않아서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없으니 환난 중에도 잘 지내고 있겠구나 싶네. 지난번 그대가 잣나무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대 또한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할 수 있겠네. 그대가 떠난 뒤 잣나무 그림 수십 본이 서울에 남아 있었는데, 모두 조리배들이 몽당붓으로 돌려가며 베낀 것들일세. 그런데도 그 굳센 줄기와 곧은 기상이 늠름히 범접할 수 없고, 가지와 잎새가 어쩌면 그리도 무성하던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원령이야말로 몰골도를 그렸다고 할 만하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본다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은 사물을 꼭 닮게 그리는 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지. 하시기에 나도 웃었다네.

旣而學士歿하고 余爲編其詩文이라가 得其在謫中所與兄書하니 以爲近接某人書하니 欲爲吾求解於當塗者라하니 何待我薄也오 雖腐死海中인달 吾不爲也라하다 吾持書傷歎曰 李學士眞雪中柏耳로다 士窮然後見素志하나니 患害愍

厄而不改其操하고 高孤特立而不屈其志者 豈非可見於歲寒者耶아

그리고 나서 학사께서 세상을 떠나셨지. 내가 그분의 시문을 엮다가 유배중에 형님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

“근래에 아무개의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나를 위해 유력자에게 풀어주기를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어찌 이다지 야박하게 대하는지요? 비록 바다 한 가운데에서 썩어 죽는다 한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편지를 손에 잡고 슬피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네.

“이학사는 참으로 눈 속의 잣나무로구나. 선비는 곤궁해진 뒤에 평소의 뜻을 살필 수 있으니 재액을 근심하면서도 그 지조를 바꾸지 아니하고 홀로 우뚝 서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은 어찌 날씨가 추워진 뒤라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今吾士涵性愛竹하니 嗚呼라 士涵 其眞知竹者耶아 歲寒然後 吾且登君之軒하고 而涉君之園하면 看竹於雪中可乎아

지금 우리 사함은 성품이 대나무를 사랑한다. 아, 사함은 참으로 대나무를 아는 사람인가? 날씨가 추워진 뒤에 내가 또 그대의 마루에 오르고 그대의 정원을 돌아다니면 눈 속에서 대나무를 볼 수 있을 것인가?